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禮器의 구성과 함의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기명을 중심으로-

구 혜 인 *

- I. 서론
- II. 예기구비와 도설제작의 배경
- III. 예기의 구성 및 조형적 특징
- IV. 도설 속 예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
- V. 결론

I. 서론

『影幀摹寫都監儀軌』(1901, 光武5)는 慶運宮 璿源殿에 모실 7대(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 선왕의 御眞을 모사한 행사를 기록한 책이다.¹ 7대 선왕의 어진이 한 기간 내에 모사된 것은 역대로 유례없는 일로, 이 의궤는 어진 관련 의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매우 정제된 형태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어진모사는 왕의 초상화를 기화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이지만, 여러 가지 필수적인

*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1 어진은 진전이라는 특별한 전각에 모셔졌다. 종묘가 돌아가신 국왕의 신주를 모신 곳이라면 진전은 국왕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진전 중 경운궁(현 덕수궁)의 진전의 제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法宮이자 실질적인 正宮이었다. 덕수궁은 순종이 태황인 고종에게 올린 궁호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영정모사도감이 제작될 당시의 궁호인 경운궁을 따른다.

2 『국역 影幀摹寫都監儀軌』(민속원, 2014), pp. 17, 30-31.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규장각본(규13990)의 크기는 가로 45.0×세로 33.4cm의 크기로 필사본이다. 2책 234장(1책 161장, 2책 16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책에 도설이 실리고 2책에 반차도가 실렸다. 규13990 외에 규장각에 3부(奎13991, 奎13992, 奎13994), 장서각에 2부(2-2765, 2-2768) 그리고 일본궁내청에 1부(朝13993-1)가 소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고는 어람용인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어진을 봉안할 眞殿이란 건축물, 어진을 봉안하는 의식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의장물과 禮器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진전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례용 그릇기명에 대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전하는 진전용 의례기가 거의 없고 기록도 희소하여 실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³

이례적으로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도설에는 기존에 실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진전용 예기들이 세밀한 화법으로 풍부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예기의 구체적인 종류·



도 1 銀瓶,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크기·문양·용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실물에 가까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1). 예를 들어 도설 속 銀瓶의 우측에 기물의 상세정보(一室銀瓶畫紋鍍金長八寸七分圓圍一尺五寸三分 第七室同)가 기록되어 있는데, ‘一室’은 태조어진봉안실, ‘銀瓶畫紋鍍金’은 도금 장식한 은병, ‘長八寸七分’은 높이 23.9cm, ‘圓圍一尺五寸三分’은 동경둘레 47.0cm, ‘第七室同’은 ‘7실(현종어진실)의 은병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도설 속 대부분의 기물에 그림과 더불어 상세정보(기물이 비치되는 어진실·기물의 종류·기물의 크기·동일한

³ 필자는 본고에서 다루는 경운궁 선원전 소용 기명들의 범주를 ‘제기’가 아닌 부를 ‘예기(의례기)’로 칭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에서 선원전 소용 기명은 제기에 속한다. 그 이유는 첫째, 『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春官通考』 등의 조선시대 국가 의례서에서 선원선(眞殿) 의례는 俗祭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선원전 그릇은 제사에 사용된 기명이다. 둘째,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선원전에서의 각종 기물에 대해 祭器라 하고 음식에 대해 祭需 혹은 祭品으로 명기하였으며, 선원전 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祭器庫’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문헌 기록만으로 판단한다면, 선원전용 그릇은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석 19와 21에서 제시한 문헌의 원전을 참고할 것.

그러나 문헌상의 명칭과 의례의 성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선원전 기명은 제기의 성격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선원전에서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선왕의 탄신일에 올리는 탄신다례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일상적인 배알시에도 각종 다례를 올렸다. 그리고 전형적인 길례용 제기 기형이 아니라 기존의 가례용 기물과 유사한 일부 기종(은병·옥잔·금잔·은잔)과 왕실용 일상 식기들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볼때 선원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는 길례(俗祭·忌祭)·가례(誕辰)·일상(拜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원전 기명을 좁은 의미의 제기로 부르는 것 보다 넓은 의미의 예기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형태의 기물이 비치되는 어진실)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진전용 예기 도설이 실린 경우는 현재까지는 『영정모사도감의궤』(1901)가 유일하므로, 이 의궤는 대한제국기 진전 의례의 구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선왕의 초상화인 어진, 어진을 봉안한 진전 그리고 진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들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은 이미 치밀하게 축적되고 있다.⁴ 그 중에서 진전 의례에 천착한 연구들이 근래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전 의례에 소용되는 각종 의례기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본고는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를 통해 경운궁 선원전 의례에 소용되는 예기에 관해 다각적으로 고찰하겠다. 선원전 예기에 관해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설을 통해 유물의 조형에 관한 미술사적 분석과 더불어 동시에 정치 공간으로서 선원전이 갖는 의미에 관한 밀도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예기들은 단순한 그릇 그림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나온 사회문화적 산물들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경운궁 선원전 예기가 구비되고 도설로 제작된 배경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설에 그려진 예기들의 종류와 특징 및 진설방법에 대해 고찰하겠다. 그리고 선원전 예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한다.

II. 예기구비와 도설제작의 배경

경운궁 선원전 제기가 일괄로 구비되고 의궤 속 도설로 그려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900년 10월 13일(윤8월 20일)에 선원전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에 기인한다. 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목조건축물로 둘러싸인 궁궐에서 화재는 피할 수 없는 악재이지만, 화재로 인해 7대 어진이 모두 灰盡된 것은 유래가 없는 참변이었다.⁵

⁴ 어진과 어진을 둘러싼 제반은 회화사, 건축사, 의례사, 정치사 그리고 공예사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 연구 대상이다. 기존 연구 성과들을 검토했을 때 다각적인 접근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진전용 예기에 초점을 맞춘 공예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본고에서 다룬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 관해서는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 의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도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서지 사항만 언급되었다.

⁵ 선원전은 역대 선왕의 어진 뿐만이 아니라 선왕의 유품들도 보관되어 있던 곳이므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특히 경계해야 하는 장소였다. 조선의 역대 왕들도 각 지방의 진전이 있는 곳에 禁火를 극진히 하도록 하교를 내렸다. 『朝鮮王朝實錄』, 1488년(성종19) 11월28일 기사 등 다수.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고종은 선원전 재건과 어진 모사를 위한 도감을 각각 설치하도록 명하였다.⁶ 다음의 고종의 언급을 통해 고종의 참담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임금님들의 전해 내려오던 자취가 오늘 모두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집의 턱이 부족하고 조상을 받들고 효성에 힘을 쏟지 못하여 이런 화재 사건이 있게 되었으니, 망극하고 애통한 심정은 더욱 절실하다...”⁷

“...예전에 왕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단 하루만 뗏을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 3일 동안 곡을 했는데도 여전히 한탄스럽다...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제외하고 이처럼 큰 사태가 없었다...”⁸

위의 언급을 통해 경운궁 선원전 어진에 대한 고종의 각별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만회시키고자, 화재 사건 이후 9개월 기간 동안 7대 어진이 모사되고 선원전이 중건되었으며 예기가 일괄적으로 구비되었다(도 2). 기존의 경운궁 선원전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동시에 급하게 조성된 진전이었다면, 1902년에 세워



도 2 경운궁 선원전의 위치, 「德壽宮平面圖」, 1910년,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진 선원전과 그 안의 내부 공간 구성은 대한제국의 국체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에 예기도 그에 상응하는 격으로 갖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예기를 구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운궁 선원전 예기가 일정한 규칙으로 구비되고 그 이후 이례적으로 도설로까지 그려진 경위를 파악

6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광무4) 윤8월 22일자 기사.

7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광무4) 윤8월 22일자 기사.

8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광무4) 9월 1일자 기사.

9 대한제국의 건립과 더불어 1898년(광무2)에 세워진 선원전은 경운궁 포덕문 내에 건립되었으나, 1901년(광무5)의 화재로 인해 1902년(광무6)에 재건한 선원전은 경운궁 영성문 내로 위치가 옮겨졌다.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선후기 선원전이 孝의 전각으로서 상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선원전의 예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예기가 진설되는 선원전이란 공간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조시대부터 1901년 이후 새롭게 예기가 구비되기 이전까지 선원전 예기가 어떻게 구비되고 관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고종이 새롭게 제기를 제작하게 된 목적과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예기가 구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설로 그려진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孝의 전각으로서의 선원전

선원전은 진전의례의 정비와 더불어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조선 초기에 진전은 궐에 넣은 어진을 보관하는 장소일 뿐 별다른 제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하여, 숙종 대부터 어진에 관한 인식이 변화되어 왕실의 종법적 질서를 각인시키고 왕통을 확고히 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영·정조대에는 진전의례가 정비되어 속절제향·작헌례·다례 등이 빈번해졌는데, 진전 중 선원전에는 앞서의 의례와 더불어 특별히 선왕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작헌례·다례 등을 행하였다. 이는 私親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강조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즉 선원전은 궁궐 안의 진전으로써 왕이 수시로 행차하면서 선왕을 배알하는 장소였으며, 영-정조대에 이르면 왕이 선왕을 향한 孝를 실행하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

¹⁰ 영조대에 이르면 선원전에는 선왕의 탄신일·四名日(정조·한식·단오·동지)·기신을 지내면서 공식일이 아니어도 전각을 수시로 배알하여 제향이 보다 빈번해졌다. 정조대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반드시 진전에서 전배하였다. 『國朝寶鑑』, 1793년(정조17)「七十年春正月朔」.

¹¹ 선원전이 사친을 향한 효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선원전 의례의 특징과도 결부된다. 유재빈은 永禧殿의 진전 의례가 국행 의례라면 선원전의 의례는 왕실의 내행 의례라고 구분 할 수 있다고 구분하였다. 유재빈, 「조선후기 어진 관계 의례 연구 : 의례를 통해 본 어진의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 10(2011), p. 81. 물론 다른 제향도 마찬가지로 조상 제사는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효행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왕실 내부 선원전에서 의 제사와 종묘사직·외방진전·영희전에서의 제사의 성격이 구별되는 이유는 선원전이란 공간이 갖는 특수한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효행이라는 바탕은 같지만, 선원전은 왕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왕이 수시로 배알할 수 있고 개인적인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조가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를 후계자로 공표하기 전에 선원전에 세손을 데리고 나아가 숙종 영정 앞에서 후계자를 아뢰었던 것은 『弘齋全書』의 정조 행장 중에 중요한 대목이다. 즉 선원전에서 갖는 개인적인 기억과 소회가 정치적으로 기록되면서 공간이 주는 역사성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 선원전에서의 일화들의 핵심은 효행이었다. 이는 선원전이 영희전보다 사적인 기억과 효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왕의 선원전 행차는 선왕에 대한 효심을 증명하는 정치적 일화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는 제기 구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정도에 맞게 갖춘 음식과 제기들이 왕의 誠孝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弘齋全書』에 기록된 영조의 일화를 살펴보자.

‘…왕(영조)은 선원전의 四時名節(정조·한식·단오·추석)이나 忌祭 혹 탄신 때면 반드시 모두 직접 행례(親行)를 하고 심지어 제물 하나하나까지도 직접 살피는 등 모든 誠敬을 다했기 때문에 주방을 맡은 宮人들도 모두 손을 씻고 정결하게 준비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왕께서 誠孝하신 소치라고 하였다…¹²

이 기록에서는 영조가 선왕에게 誠敬을 다한 행례와 제물로 모셔, 모두를 감복시키는 지극히 효성스러운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일화들이 영조-현종대 기록에 다수 남아있다. 왕의 효는 사친을 향한 개인적인 효임과 동시에 예치를 통해 백성을 감화시키고 왕실의 중범 질서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적인 효이기도 하였다.

고종은 특히 선원전에 각별했다.¹³ 고종은 이어할 때마다 어진을 모실 선원전을 중건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였다. 고종은 즉위 초기 경복궁을 건립할 때부터 경복궁 내에 선원전을 지어 창덕궁 선원전의 6위(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현종)를 이봉하여 경복궁 선원전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어한 후에 경운궁 내에 선원전을 서둘러 건립하고 어진들을 모셔온다.¹⁴ 이와 같이 고종대의 선원전은 창덕궁·경복궁·경운궁 세 궁궐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자신이 머무는 궁궐에서 선왕의 어진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고종이 경운궁 선원전에 각별한 정성을 들였다는 것은 경운궁 선원전 화재를 당한 후, ‘짐이 이 역대 임금님들을 매우 가까이 의지하며 살아계시는 것처럼 모시는 도리를 다

¹² 『弘齋全書』, 제 17권 「行錄」 「英宗大王行錄」.

¹³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선원전에서 행한 행례 횟수가 가장 빈번한 왕은 고종이었다. 강성금, 「朝鮮時代 眞殿 誕辰茶禮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p. 16. 강성금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왕별 선원전에서의 행례 횟수를 참고하면, 태조-경종시기에 이르기까지 평균 1-2회이며 많아야 20회를 넘기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조선후기에는 매우 급증한다고 분석하고 구체적인 횟수(영조 85회, 정조 77회, 순조 77회, 현종 14회, 철종 43회, 고종 100회)가 제시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조선후기 왕의 선원전 행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종대에 그 횟수가 두드러진 것은 분명하나, 논문에 기재된 숫자는 재확인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¹⁴ 『高宗實錄』, 1897년(광무1) 6월 19일.

한 것은 오직 이 진전(경운궁 선원전)뿐이었다'라는 고종의 발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1900년 10월 13일 선원전의 화재사건은 단순히 전각이 불탄 것이 아니라 생전의 부모를 봉양하듯 가까이서 모신 전각과 그 안의 어진들이 모두 회진된 참사였고 고종과 각료대신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기사에서는 ‘조상을 받들고 효성에 힘을 쏟지 못하여’ 이와 같은 참변이 일어났으며 ‘선왕의 탄신일에 진전 다례를 예법대로 시행할 수 없어 더욱 유감스럽다’는 고종의 자책과 더불어 ‘폐하의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효심’에 감복하는 대신들의 칭송이 교차한다.¹⁶ 이를 통해 경운궁 선원전은 효라는 유교 덕목이 머무르고, 의례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기사에는 어진모사를 위한 크고 작은 절차마다 다례·고유다례·작헌례 등을 빈번하게 올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효의 의례화를 통하여 황실의 종법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선원전은 조선후기 진전 중에서도 국왕이 선왕을 추모하고 성효한 군왕임을 드러내는 주요한 의례 공간이 되었다. 다양한 의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장물과 제수 및 예기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예기들은 고종의 선원전을 향한 각별함에 상응하는 구성으로 구비된 것이며, 도설 속 예기의 다양다종한 구성과 높은 수준 역시 결국 고종이 성효한 황제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¹⁷

2. 선원전 예기의 구비와 관리 방식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도설을 통해 선원전 예기가 대부분 새롭게 구비되었다

¹⁵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광무4) 윤8월 22일자 기사.

¹⁶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광무4) 윤8월 22일자 기사; 9월 1일자 기사.

¹⁷ 고종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가계도의 방계 출신으로, 익종(문조)과 신정왕후의 양자 신분으로 왕위에 올랐다. 고종이 황제 등극 후 경운궁 선원전 증건과 어진 모사에 각별한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직계 혈통이 아닌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선원전에(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현종)의 어진을 모시는 것은 직계 선왕에 대한 의례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부자간의 효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왕실의 직계 혈통의 대열에 자신을 세우면서, 경운궁 선원전에 철종의 어진을 모시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경운궁 선원전 예기들은 대한제국 선포(1897년)와 더불어 여러 제도와 의장물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변화를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1900년 화재 이후 새롭게 구비되면서 더욱 완벽한 구성과 장식으로 갖추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선원전 예기는 어떻게 구비되고 관리되었을까?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 이후 선원전 예기의 구성과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제국 이전에 선원전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종류의 예기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남겨진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제향의 성격과 시기마다 진설되는 음식과 예기의 가지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사례만으로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일부 기록을 통해 부분적인 상황을 유추해보도록 하자.

정조대 기록에 ‘창덕궁 선원전 숙종 봉안실인 1실의 제기가 100器에 가까워 正道의 예에 넘치니 46기의 銀器로 새롭게 제작하여 태조와 영조 어진 봉안실에 들인다’는 기사가 있다.¹⁹ 이어 선원전의 제기를 戶曹에 분부하여 조성하기 위해서 대내에서 見樣을 내려주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대한제국기 이전의 선원전 제기가 46기로 이루어진 은기였으며, 왕실에서 내려 보낸 견양을 통해 호조에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²⁰

정조대 46기로 새롭게 구성되어 마련된 선원전 예기들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부터 고종 재위기간 중 대한제국 선포 직전까지 선원전 작헌례 親行

¹⁸ 도설 속 예기 그림 우측에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중에는 치수(높이, 둘레)가 기록된 것과 치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 치수가 기록된 것이 전체의 70%에 해당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옥잔 등 치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나머지 30%(건축장식 및 의장물 일부, 가구, 잔 등)를 차지한다. 의궤의 기사를 통해 어진과 전각이 모두 불타버린 와중에 기존의 예기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대부분의 예기와 의장물들이 새롭게 구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데, 도설 속 치수의 유무를 통해 기물의 제작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치수가 기록된 기물은 기물의 형태제작과 장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제작한 후 완성품의 치수를 기재한 것이고, 치수가 기록되지 않은 기물(옥잔 등 일부기물)은 원래 황실용으로 구비되었던 기물을 보수하거나 재가공(付金·彫琢·裝飾·磨單等)하여 선원전용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의궤의 품목조의 내용을 통해 唐家·五峯屏·龍床는 경복궁 중화전의 것을 옮겨와 보수하였고 외주림은 영희전의 것을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도설 중 이 품목들에는 치수가 기재되지 않았다. 반대로 香爐·香盒·水晶仗·金鉞斧 등은 새로이 제작되었으며 도설에 구체적인 치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기물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浮龍·黃扇 등은 분명 새롭게 제작되었지만 도설에 치수가 없다. 또한 기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기들에는 대부분 치수가 기재되고 賞典의 別單에 玉匠(3인)·銀匠(3인)·鑪匠(3인)들이 등장하지만 품목조에는 기물 제작과 재사용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치수가 기재된 예기들의 대부분은 새롭게 제작된 것이며 일부 치수가 기재되지 않은 기물들은 선원전의 위상과 용도에 맞게 재가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궤 속 그릇기명의 제작체계·조달과정·의궤 도설 제작과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¹⁹ 『日省錄』 1778년(정조2) 1월 20일.

²⁰ 『日省錄』 1778년(정조2) 1월 23일.

을 위해 ‘제물은 영희전의 예대로 봉진하고 제기는 호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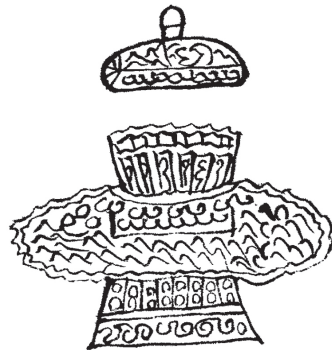
이처럼 선원전 제기 조성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다가,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주요 진전의 기물들과 의장들을 天子의 의식대로 고치라는 하교가 내려진다. 1897년 10월 20일의 고종황제의 하교 내용을 주목해보자.

“...『孝經』에서는 ‘宗廟에서 흠향하고 자손들은 보존된다.’고 하였는데, 나라의 전례가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周 나라에서 先祖를 천자의 예로 제사지낸 것은 만대의 법으로 할 만한 것이다. 宗廟의 南殿, 慶基殿, 潛源殿, 璿源殿, 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라...”²²

위 기록은 대한제국기 선원전 예기가 천자의 격식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되어 제작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보여준다. 선원전 예기를 천자국의 예기에 맞추어 교체하는 것은 ‘천자의 의식 절차’를 외부적으로 갖추려는 정치적 기제와 ‘종묘에서 흠향하고 자손들은 보존된다’는 선조의 음덕을 기원하는 마음이 내포된 결정이었다. ‘기물과 의장들을 천자의 의



도 3-1 俗祭用 畫龍沙尊, 『大韓禮典』



도 3-2 俗祭用 銀鍍金滿鏤臺盞, 『大韓禮典』

²¹ 『日省錄』 1792년(정조16) 5월 22일; 『承政院日記』 1894(고종31) 5월 23일 등 20여건의 기사. 이 이후로는 '선원전 작헌례 親行을 위해 제물은 영희전의 예대로 봉진하고 제기는 호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는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나, 더 이상 호조에서 제기를 가져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제기고에서 관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원전 제기 구비를 위한 절차가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²² 『高宗實錄』 1897년(광무1) 10월 20일.

식절차대로 쓰되'라는 언급은 의절을 바꾼다는 것 이라기보다는 선원전을 포함한 다섯 진전에서 사용되던 기존 기물들과 의장물들을 천자의 의식 절차에 맞도록 교체하거나 고쳐 써서 先祖를 천자의 예로 제사지내어 갖춰 모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韓禮典』에 기록된 진전 의례의 의절을 기존 의례서(『國朝五禮儀』, 『春官通考』)와 비교해 보아도 '王·王世子'를 '皇帝, 皇太子'의 명칭으로 바꾸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²³ 또 『대한예전』에 실린 도설 중 俗祭用 禮器인 畫龍沙尊과 銀鍍金滿鏤臺盞의 도식도 기존의 의례서와 동일하다(도 3). 따라서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진전들의 기물과 의장들을 일제히 교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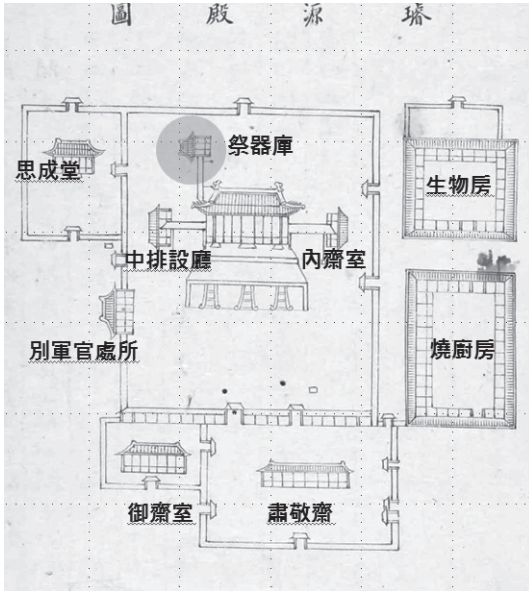
그러나 1900년 선원전 화재 이후 어진을 비롯한 기물과 의장들이 전소되자 고종황제는 기존의 의지를 실행하고자 하였다.²⁵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를 통해 선원전 의례에

23 조선시대 진전 의례에 대한 내용은 성종대 완간된 『國朝五禮儀』, 『俗節享眞殿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의례서에 진전의례가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끝내 진전인 선원전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진전이 영희전의례를 위주로 기술되었다. 『國朝續五禮儀』, 『永禧殿俗節祭』, 『酌獻禮永禧殿儀』, 『親享永禧殿儀』; 『春官通考』, 『眞殿』. 위 기록들은 영희전 의례에 관한 것이므로 선원전의례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朝鮮王朝實錄』과 『日省錄』에서 '…瑤源殿酌獻禮親行時 祭物依永禧殿祭享時例封進'라 하였으므로 조선후기에는 兩殿의 의례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大韓禮典』, 『酌獻禮瑤源殿儀』에도 선원전 의례를 여기에서는 '與酌獻永禧殿儀同'이라고 기록되었다.

이후 진전다례가 선원전 다례로 단일화되는 계기가 발생했는데,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강제 퇴위를 당하고 순종이 즉위함에 따라 진전체계가 선원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정리되었다. 1908년(융희2) 7월 전국 진전의 어진 대부분들이 경운궁 선원전과 思成堂으로 이봉되었고, 1920년(大正9) 2월에 경운궁에서 창덕궁(舊)선원전으로 이봉되었다. 일제강점기 선원전다례에 관한 문헌인 『祭祀 附瑤源殿茶禮』(1928), 『笏記 陳設圖』(1937)에는 선원전 다례를 비롯한 각종 제사 다례와 진설도가 실려있는데, 일제강점기 진전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작성된 문서들이므로 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와 동일하다고 확인할 수 없다. 다만 『瑤源殿酌獻禮陳設圖』와 『瑤源殿告由茶禮陳設圖』를 통해 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를 유추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일제강점기 동안에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겠다.

24 대한제국은 늘 재정난에 시달렸고, 『대한예전』의 편찬도 재정난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기와 의장들을 일제히 새롭게 구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건국 초기에 '기물과 의장들을 천자의 의식절차대로 쓰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재정적 이유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전』에 나타난 황제국의 의례와 그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2007. 대한제국 초기에는 제후국에서 황제국의 의례체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 기존 기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기들을 모두 교체할 수는 없었으나, 1900년 선원전 화재로 모두 燒盡된 상황에서는 천자의 예에 합당하게 구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5 선원전 예기 구비에 의거하였을 명-청대 의례서를 통해 황실 진전의례용 기물들을 확인하려 했으나 필자가 미진한 탓인지 적합한 문헌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명-청대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옥잔과 유사한 형태와 문양의 다종다양한 옥잔, 왕실 식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쌍룡문 장식 그리고 도설은 차치하고라도 문자로도 기록되지 않았던 선원전 예기를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 이르러서 세밀한 도설로 기록된 점은 천자국의 격식과 위상에 걸맞게 하려는 고종황제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기의 구체적인 조형적 특징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도 4 12칸으로 조성된 경운궁 선원전 제기고, 『선원전진전중건도감의궤』(1902)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재질·조형·문양의 기물들이 구비되었는데, 새로운 제기를 일시에 구비한 사실은 제기고의 규모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00년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경운궁 선원전의 재건과정을 기록한 『塔源殿眞殿重建都監儀軌』(1902, 광무5)에는 선원전의 평면도가 실려 있다(도 4). 그 중 祭器庫는 ‘十二間’으로 세워졌는데, 비슷한 시기 도성의 국행의례가 행해졌던 영희전 제기고가 ‘二間’이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이처럼 대한제국기 선원전의 예기가 천자 의식에 맞추어 새롭게 구비되고 제기고도 크게 확장된 사실

은 선원전의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1901년 예기 구비와 도설 제작의 배경

경운궁 선원전이 효의 전각으로 부각되면서 의례가 중요시되고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儀器를 갖추려는 목적에서 경운궁 선원전 예기가 마련되었다면, 왜 예기 구비에 그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도설로 기록을 남겼을까?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에 나타난 기물들은 현전하지는 않지만 세밀한 그림으로 남겨져 있고 도설의 양과 수준이 기존의 어진관련 의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여 도설을 통해 실물의 형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구성은 기존의 어진 관련 의궤의 구성과 다른데 도설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보자(표 1).

표 1 임진왜란 이후-대한제국기 어진 관련 의궤의 도설과 예기

재위왕, 연도		의궤명과 어진관계 왕	도설·반차도 유무/도설 면수와 전체구성/ 도설 내용(개수)	소장처
숙종	1688.5 (숙종14)	影幀摹寫都監儀軌 太祖	도설·반차도 없음/전체 1책 276면	규
	1713.4 (숙종39)	御容圖寫都監儀軌 肅宗	도설·반차도 없음/전체 1책 286면	규국
영조	1735.9 (영조11)	影幀摹寫都監儀軌 世祖	도설·반차도 없음/전체 1책 274면	규장국
	1748.2 (영조24)	影幀摹寫都監儀軌 肅宗	무채도설3면/채색반차도18면/전체1책368면 玉軸上軸/玉軸下軸/軸上大圓環/軸上中環/銀簪/禮哭尺/營造尺/布帛尺/針尺/黑長橫外裏匣袱/예기 없음	규장
현종	1838.2 (현종4)	影幀摹寫都監儀軌 太祖	채색도설4면/채색반차도18면/전체304면 玉軸上軸/玉軸下軸/軸上圓環排/銀簪/黑長橫/黑長橫外裏匣袱/輦/예기 없음	규장
고종 황제	1900.4 (광무4)	影幀摹寫都監儀軌 太祖	채색도설9면/채색반차도27면/전체1책452면 降眞香上軸/降眞香下軸/軸上鍍黃金銀環排/銀龍頭簪/黑長橫/黑長橫外裏匣袱/流蘇/陞降龍絡纓/插屏/龍床/下平床/踏掌/輦/예기 없음	규장궁
	1901.6 (광무5)	影幀摹寫都監儀軌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翼宗·憲宗 채색도설1책59면/채색반차도2책86면/전체2책626면 (1책326면,2책330면) 唐家/浮龍/流音風穴/五峯屏/五峯屏挾幅/龍床/陞窓交椅/陞窓交椅/降眞香上軸/降眞香下軸/鍍金銀環排/銀簪/流蘇/黑長橫/護匣/香爐(2)/香盒(5)/香床/火箸·火鉢·華榴桶/日傘/水晶杖/金鉞斧/扇/插機/插屏/酌獻禮用眞玉盞·盞臺(7)/眞殿茶禮用眞玉盞·盞臺(5)/銀瓶(5)/銀匙/銀箸/銀籤/銀勺/銀匙楪(2)/銀楪匙(2)/銀眞苴器(2)/銀周鉢(2)/銀鐘子/銀葉瓢/銀餅盒(2)/銀湯甫兒/銀食醢器(2)/銀雀舌茶器/銀酒器/銀楪匙/銀楪匙/銀炙器/銀折肉器/銀茶器 眞漆木臺/純鍍金盞 純鍍金盞臺/銀楪匙/銀于里/鍍西苴器/鍍錚盤/ *예기 도설은 전체 도설(총59면) 중 37면에 해당	규장궁
	1902 (광무6)	御眞圖寫都監儀軌 高宗 황태자	채색도설20면/채색반차도20면/전체1책356면 龍床(2)/五峯屏/插屏/黑長橫/護匣/降眞香上軸/降眞香下軸/鍍金銀環排/銀簪/流蘇/机/鳩杖/雅佳床(2)/香佐兒(2)/香爐/香盒/火箸火鉢桶/龍交椅(2)/御座榻(2)/예기 없음	규장

(소장처의 '규'는 규장각, '장'은 장서각, '궁'은 국립중앙박물관, '궁'은 일본 궁내청을 의미함/도설 내용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同名異器, 즉 같은 명칭으로 다른 그림이 있는 경우를 센 숫자임/ 표 안의 밑줄 친 내용은 도설 중 의례용 기물을 표시한 것임.)

〈표 1〉을 살펴보면, 숙종부터 영조 초기까지는 어진 관련 의궤에 도설과 반차도가 없었다. 1748(영조24)년에 숙종의 어진을 그린 『영정모사도감의궤』(1748)에서 비로소 도설과 반차도가 등장한다. 이 의궤에서 반차도는 채색으로 18면에 이르지만, 도설은 3면에 10점이며 이중 예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조대에도 어진이 모사되었으나 현전하는 의궤가 없다. 현종대에는 반차도와 함께 채색도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도설 속 기물의 종류는 『영정모사도감의궤』(1748)와 흡사하고 전체 분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리고 분상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설의 화법 수준도 높지 않다.

고종은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는 어진을 모사하지 않다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1899년에 이르러서 태조어진을 모사하도록 한다.²⁶ 『영정모사도감의궤』(1900)의 채색도설은 매우 정교한 필치로 그려져 도설의 표현수준과 방식이 기존과 크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설 속 의례기의 종류로 流蘇·陞降龍絡纓·插屏·龍床·下平床·踏掌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龍床·下平床·踏掌과 輦 지붕을 황색으로 색칠하여 황제로 추존된 태황제의 격에 맞는 기물들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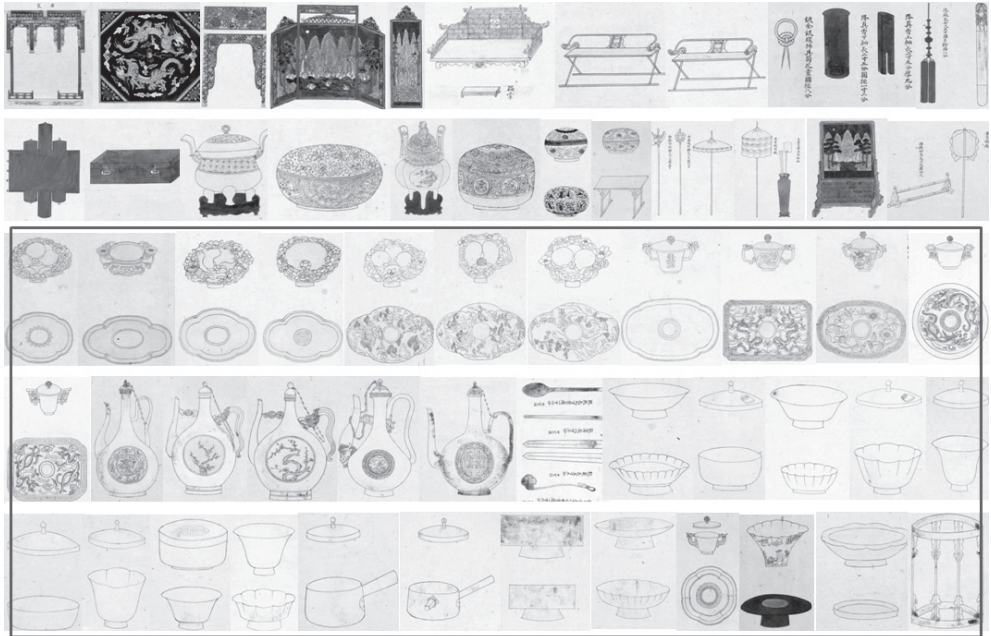
이 의궤 속 도설은 의당 있어야 하는 기물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정통성과 권위를 증명해줄 황실용 기물들을 갖추었음을 시각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의궤가 행사의 시말을 기록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이후의 행사를 위한 전례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종은 황제의 격을 갖춘 기물들을 갖추고 이를 시각자료로 남기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새롭게 모사한 태조 어진을 비롯하여 7대 어진이 모두 전소되었다. 이 때 진전과 선왕의 유품들도 모두 회진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제구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에 1901년의 『영정모사도감의궤』는 태조 이하 7대 어진의 의장물들과 예기들을 모두 조성하고 이를 도설로 기록하였다(도 5). 특히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는 기존 어진 관련 의궤에서 도설로 실었던 기본 의장물 외에도 새로운 의장물과 예기들이 추가되었다.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제기들은 총 59면의 도설 중에서 37면에 그려졌으며, 종류는 28종 58점에 달하였다. 각 봉안실마다 28종이 동일하게 배치되므로, 선위전 예기의 총 수량은 약 20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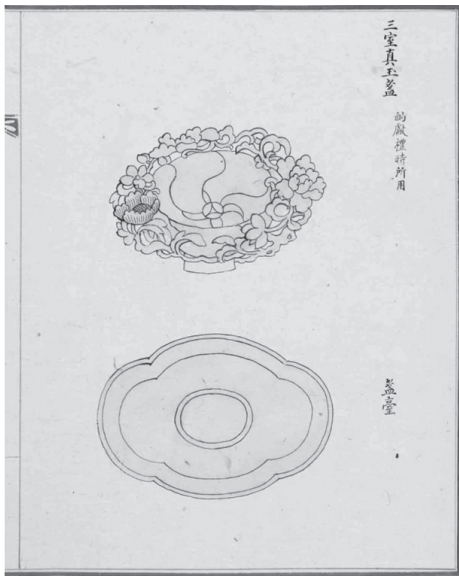
²⁶ 고종대 태조 어진모사를 조선시대 시각문화와 정치권력의 관계란 관점에서 통찰한 연구로는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고종대의 태조 어진과 진전」, 『미술사연구』 20(2006), pp. 29-56 를 참고.

²⁷ 명성황후 국장을 기점으로 황실소용 의례기를 황색으로 장식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박계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명성황후발인반차도〉연구」, 『美術史論壇』 35(2012), pp. 9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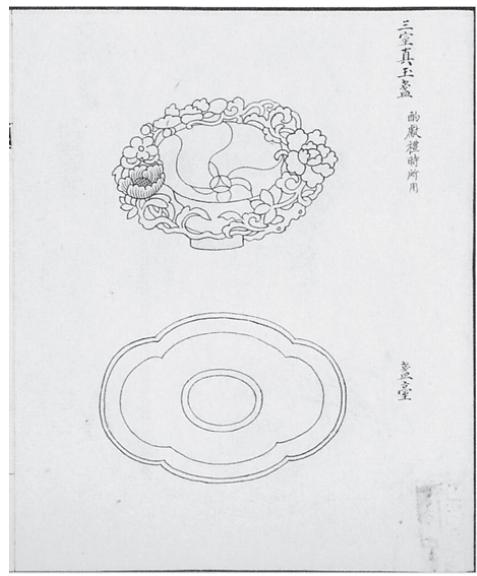
²⁸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1900년 9월 1일자 기사.



도 5 경운궁 선원전의 의장물과 예기,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도 6-1 玉蓋과 蓋臺, 제3실(영조) 작헌례용,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어람용) 도설



도 6-2 玉蓋과 蓋臺, 제3실(영조) 작헌례용,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분상용) 도설

러 제기들 중 잔과 병을 어진별로 다르게 배치하여 도설의 면수가 크게 급증하게 되었다.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제기의 표현 특징에 관해 살펴보자.

우선 예기 도설이 매우 공들여 정세하게 제작되었다. 어람용과 분상용 도설 모두 목판이 아닌 筆寫로 그렸고, 그림의 수준에도 어람용과 분상용의 차이가 적어 讀者에 관계 없이 모든 의궤 도설을 최고 수준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6).²⁹⁾

기존 어진 관련 의궤 중 고종대 이전의 의궤는 대부분 도설이 매우 간략한 경우가 많다(표 1).³⁰⁾ 그러나 고종대 어진관련 의궤 중에서도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의 도설은 필사로 그려져 섬세한 표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다양다종한 기물을 높은 수준의 화법으로 기록하였다. 어람용과 분상용 의궤는 마치 인쇄한 듯 동일하게 보이나 세부 표현에서 차이를 보여 필사로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6). 이와 비교하여, 고종대 진연·진찬의궤의 도설부분이 목판인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할 수는 있었지만 도설 속 기물들의 선이 경직된 편이다(도 8). 이에 비해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는 도설을 필사로 공들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어람용 뿐만 아니라 분상용 의궤의 도설도 매우 정세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³¹⁾ 이는 병풍을 비롯한 중요 의장물과 더불어 새롭게 마련한 최고급의 예기를 최상의 도면으로 담아내어 후세의 충실한 전례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종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예기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크다. 예기의 크기가 도설 속 병풍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졌는데, 이는 단순히 크기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물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도 5).³²⁾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進宴儀軌』(1902)와 『[太祖]영정모사도감의궤』(1900) 속 도설과 비교해보자. 『進宴儀軌』(1902)에

²⁹⁾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는 3건(어람용 1부, 분상용 2부)이 전해오는데, 이중 규장각 소장의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는 어람용으로 체제와 도설이 가장 정세하다. 다른 의궤들이 어람용과 분상용에서 큰 제작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반해서 『영정모사도감의궤』(1910)는 필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수준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 행사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의궤 제작에도 어람용과 분상용의 구분 없이 매우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³⁰⁾ 기존의 어람용과 분상용 도설은 필사로 그려진 경우는 매우 간략한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종 대 도설을 목판으로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어람용과 분상용 모두 균일하고 정밀한 형태를 갖추도록 경우로 변화하였다. 그 가운데 어람용과 분상용 모두 필사로 세밀하게 그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의궤의 판화도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향장면이나 반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법전 속 도설(圖式)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박은순,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2005), pp. 254-255.

³¹⁾ 어람용과 분상용 도설의 제작순서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³²⁾ 도설 속 기물의 수량·배치·표현방식, 도설 속 기물의 크기가 갖는 의미, 어람용·분상용 기물의 표현과 수준, 그린 주체와 신분, 시대별 도설의 변천과 특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도 연향용 그릇들이 다수 그려졌지만, 한 화면에 다수의 기물이 배치되어 있고 기물명 이외에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도 8). 더불어 1900(광무4) 『[太祖]영정모사도감의궤』(1900)에도 구획이 없는 면에 그림과 세부정보가 실린 경우가 있어 일 년 뒤에 제작될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선례가 되었지만, 이 의궤에서는 예기가 포함되지 않았다(표 1).³³ 이처럼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58점에 달하는 예기가 화면 전체를 활용하여 그려진 것은 그만큼 이 의궤에서 예기가 중요한 기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도 5).

이처럼 도설 제작 방식과 제작 수준을 통해 볼 때 고종은 선원전 제기를 천자국의 의식에 맞추어 구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하듯 도설로 기록하도록 하여 모범적인 전례서로 삼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운궁 선원전에 예기가 구비되고 도설로 그려지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운궁 선원전 제기는 조선후기부터 선원전이 효의 전각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효행을 위한 의례와 의례기를 갖춰놓기 위하여 각 별히 구비되었으며, 둘째 기존 예기의 구비와 관리측면에서 고종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자국의 의식에 부합하는 선원전 전용 예기를 갖출 것을 공표하여 1901년에 비로소 갖추게 된 후 12칸으로 확장된 제기고에서 관리하였고, 셋째 예기를 구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화면으로 담아내어 향후에도 황제국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전례서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Ⅲ. 예기의 구성 및 조형적 특징

이 장에서는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예기의 구성과 조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현전하지는 않지만 도설을 통해 실제 모습을 추정하고 조형적 계통을 밝혀보고자 한다.³⁴

³³ 1년 전에 제작된 『영정모사도감의궤』(1900)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기들이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서 구체적인 치수와 함께 그려진 것은 경운궁 선원전 예기들이 1901년에 새롭게 조성되었음을 뒷받침 해준다.

³⁴ 1919년 경운궁 선원전 어진들이 창덕궁으로 이봉되면서 예기들도 옮겨졌는지 혹은 산일되었는지, 그 행방이 확실하지 않다. 참고로 창덕궁으로 이봉된 경운궁 선원전의 어진들은 한국전쟁 와중에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1954년 12월 26일의 화재사건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선원전 예기들은 이때 함께 소실되었거나, 혹은 일제강점기-해방 직후 산일되어 해외로 반출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만약 해외로 반출된 것이라면 중국 공예물로 오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운궁 선원전의 어진은 태조 1실, 숙종 2실, 영조 3실, 정조 4실, 순조 5실 문조 6실, 현종 7실로 봉안되었다. 각 실에는 당가·교의 등이 의장물로 장식되고 옥잔·은병 등의 각종 예기들이 진설되었는데 이 기물들이 모두 의궤의 도설로 그려졌다. 전체 도설에는 57종 93점의 기물이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 당가·오봉병·용상과 같은 의장물을 제외한 예기의 수량은 28종 61점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도설의 65%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도설의 많은 분량을 예기도설이 차지하고 있다. 도설 속 예기의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 2).

표 2 경운궁 선원전 예기의 기종과 종류

기종	종류	기명(용도, 기형별 종류)	기종	종류	기명(용도, 기형별 종류)
잔+잔대	玉	玉盞(작헌례용, 7종)	접시	銀	銀樸匙(4종)
		玉盞(진전다례용, 5종)	종자		銀鐘子(1종)
	金·銀	純鍍金盞(1종)	엽표		銀葉瓢(1종)
		銀茶器(1종)	우리		銀于里(1종)
병	銀	銀瓶(5종)	우리용접시		銀樸匙(1종)
차주자	銀	銀雀舌茶器(1종)	떡그릇		銀餅盒(1종)
술주자		銀酒器	탕그릇		銀湯甫兒(1종)
시		銀匙(1종)	식해그릇		銀食醢器(2종)
저		銀箸(1종)	구운고기그릇		銀炙器(1종)
침		銀籤(1종)	건어물그릇		銀折肉器(1종)
구		銀句(1종)	참외 그릇	銀眞苺器(2종)	
시접		銀匙樸(1종)	수박 그릇	鍮	鍮西苺器(1종)
주발		銀周鉢(2종)	쟁반		鍮錚盤(1종)

어진별 예기 구성의 특징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봉안실별 예기의 구성면에서, 각각의 어진 봉안실마다 예기의 기종과 구성이 동일한 기물들이 배치된다. 각 실별 기종을 분류하면, 잔대가 구비된 잔 5종(玉盞 2종류, 純鍍金盞 2종류, 銀茶器 1종류), 병 1종(銀瓶), 차주자 1종(銀雀舌茶器), 술주자(銀酒器), 시·저·침·구 각 1종(銀匙·銀箸·銀籤·銀句), 시접 1종(銀匙樸), 접시 3종(모두 銀樸匙), 주발 1종(銀周鉢), 종자 1종(銀鐘子), 엽표 1종(銀鐘子), 우리와 우리용 접시 1종류(銀樸匙·銀于里), 쟁반 1종류(鍮錚盤), 떡그릇 1종류(銀餅盒), 탕그릇 1종류(銀湯甫兒), 식해그릇 1종

류(銀食醢器)³⁵, 구운 고기 그릇(銀炙器), 건어물 그릇 1종류(銀折肉器), 과일 그릇 2종류(銀眞瓜器, 鑪西瓜器)이다(표 2).³⁶ 이와 같은 28종 기종이 각 실별로 치우침과 모자람이 없도록 동일하게 경운궁 선원전 각 봉안실에 진설되었다.³⁷

둘째, 동일한 구성 속에서도 각 실별로 일부 기종의 조형을 통해 차이와 구분을 주었다.³⁸ 대표적인 기종이 옥잔과 은병이다. 다른 대부분의 기종들은 문양이 없거나 간단한 문양으로 장식된 데에 반해서 옥잔과 은병은 모두 문양이 있으며, 대부분 각 실별로 다른 기형과 문양의 은병이 진설되었다(표 3).

우선 옥잔은 酌獻禮用과 眞殿茶禮用으로 구별된다.³⁹ 같은 기종인 은잔과 순도금잔의 기형과 문양이 7실 모두 동일한데, 옥잔이 용도에 따라 나뉘는 것은 옥잔이 해당 의례(작헌례·진전다례)를 대표하는 기물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 5).

옥잔은 용도에 따라 다른 성격의 기형과 장식으로 나뉜다. 즉 작헌례용 잔은 뚜껑이 없고 고부조의 집단 꽃무늬로 기형과 장식이 이루어진 자연스럽고 화려한 성격의 잔이라면, 진전다례용 잔은 뚜껑과 대칭형의 손잡이를 갖춘 형태에 옥의 외면에 壽字文·靈芝文·龍文이 저부조로 조각되어 있는 격식을 갖춘 정제된 성격의 잔이라고 할 수 있다(도 6, 도

35 식혜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쌀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이다. 절육은 건어물을 오려서 봉황 또는 꽃 모양 등으로 만든 것으로, 조선왕조 연회 때 반드시 올라가는 찬품의 하나였다.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가람기획, 2006), p. 264.

36 도설에 기록된 기물의 순서는 무의미한 열거가 아니라 제기의 기형과 재질에 따른 위계 등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목록이라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재질도 옥·은·유기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도설 속 예기의 순서를 통해 본 예기의 위계서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7 기종만 기재된 경우도 있으나 銀餅盒 銀湯甬兒처럼 담은 음식명까지 기재된 것은 음식과 관련된 기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관련 진설도(속제·선원전다례·선원전작헌례)는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春官通考』, 『大韓禮典』, 『祭祀 附瑤源殿茶禮』, 『笏記陳設圖』의 진설도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진설도의 제수와 『영정모사도감의궤』의 기명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의궤의 鑪西瓜器, 銀眞瓜器는 진설도에서 등장하지 않는 음식과 기명이다. 속제용 진설도 변화와 의궤 속 기명간의 상관관계는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수박(西瓜)이 효사상과 결부되면서 祭儀에 진설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2014) 참조. 구혜인, 「조선 후기 회화와 공예에 나타난 수박문」, 『정신문화연구』 136(2014), pp. 69-70, 73-75, 83-87.

38 여러 기종 중에서 가장 특별한 기종은 잔이다. 잔은 재질별로 옥잔, 은잔, 순도금잔으로 다양하게 나뉘고, 특히 옥잔은 작헌례용(7종)과 진전다례용(5종)으로 다시 세분된다.

39 1778년(정조2) 정조는 영조의 탄일인 9월 13일에 선원전에서 다례를 친행으로 거행한 이후로 시작하여 순조대에 본격화되었다. 선원전 다례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 사료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이옥,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민속원, 2008), pp. 275-284; 조선시대 다례에 관한 연구는 정영선, 강성금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정영선, 「茶禮祭祀의 淵源과 展開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6); 강성금,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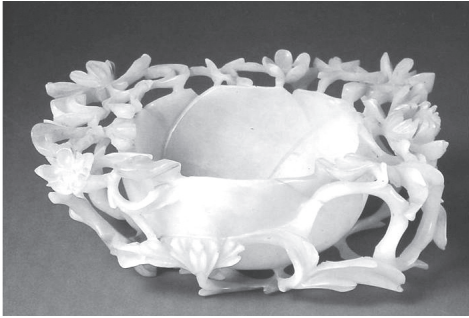
표 3 도설 속 잔과 병의 봉안실별 구성과 특징

기종	재질과 용도	1실 태조	2실 숙종	3실 영조	4실 정조	5실 순조	6실 문조	7실 현종
잔	작헌례용							
	옥잔							
	진전다례용							
	은차잔							
순도금잔	 (7실 모두 동일)							
병	은병							
	長(높이)× 圓圍(최대동경 둘레), cm환산	八寸七分× 一尺五寸 三分 23,9×42,0	八寸×九寸 五分 21,9×26,1	八寸×一 尺二寸五分 21,9×34,3	九寸七分× 七寸五分 26,6×20,6	九寸×一尺 七寸 24,7×46,7	九寸×一尺 七寸 24,7×46,7	八寸七分× 一尺五寸 三分 23,9×42,0

9, 도 11, 도 12).⁴⁰

이와 같이 옥으로 잔과 잔대를 제작하는 경향은 중국 명·청대에도 유행하여 고급공예품으로 제작되었다. 도설 속 선원전 제기들의 실물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명·청대 옥기들 중에서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한 예가 남아 있어 양식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⁴⁰ 작헌례용 옥잔 중에는 반구형의 잔이 6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구화배도 확인된다(도 6, 표 3). 조선시대 구화배의 조형과 '忠'을 상징하는 정치적 기물로써 고찰한 연구로는 윤효정의 연구를 참고할 것.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2013), pp. 413-454. 본고에서 경운궁 선원전 옥잔의 조형 체계에 관해 밝히고자 했으나 일부 잔의 유사성만 가지고 명 혹은 청의 영향으로 단언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도 7 青玉鏤空葵花杯, 高7.4cm, 明, 대만 국립고궁 박물관



도 8 목판으로 인쇄된 진연용 예기, 『진연의궤』(1902) 도설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잡이를 꽃모양으로 조각하고 중심에 보석을 감입하는 장식방법은 중국에서 명·청대에 유행한 옥기의 장식기법이었다(도 9, 도 10). 또 규화형으로 생긴 잔 주변을 고부조와 투각의 꽃무늬로 조각하는 장식방법 역시 원대에 시작되어 명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청대에도 생산되었던 옥장식 기술이었다(도 7).⁴¹ 도설의 장식 표현이 실물을 사실적으로 충실히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옥잔에서 한쪽의 장식이 매우 소략한데, 그 이유는 그 부분으로 입술을 대거나 술을 따르기 때문이다. 도설에서도 한쪽 면을 소략하게 표시하여 실제의 옥잔의 기형과 장식을 도설에 매우 사실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6). 또 진전다례용 잔에서 두 마리의 교룡 머리 형상으로 표현된 손잡이나 옥잔과 금재질 뚜껑과의 조합도 중국의 옥기 장식과 유사하여 조형적인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도 11, 도 12, 도 13).

다음으로 특수성이 강한 기종이 은병이다(도 1, 표 3). 총 5점의 은병이 그려졌는데, 1실과 7실이 동일하고, 5실과 6실이 동일하다. 대부분 좁은 입수구에 둥근 형태의 동체가 연결되어 있고, 곡선형태의 손잡이와 출수구로 구성되었다. 모두 뚜껑이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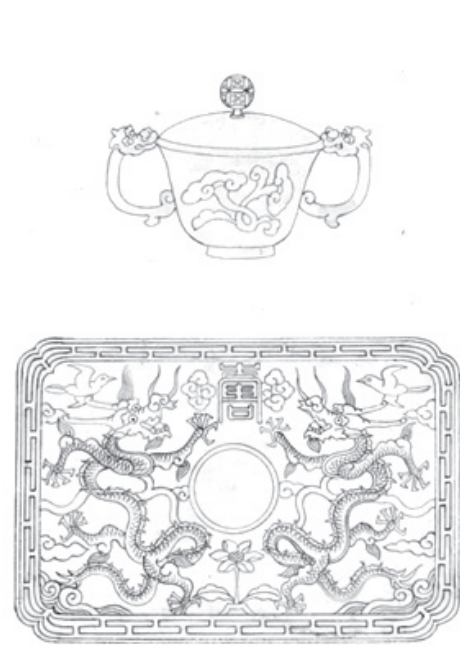
⁴¹ 馬白樹, 『中國文物定級圖典』下券, 上海辭書, 2006. 대한제국은 황제국 의전의 전범으로 명의 『大明集禮』와 『大明會典』을 참조하였고, 공예분야에서도 明式, 明+조선식이 주류를 이루고 淸式도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선학들을 통해 밝혀졌다. 선원전 예기가 중국 명대와 청대 진전의례 및 의례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국 황실 진전 의례와 의례기에 대한 구체적인 중국 문헌이 파악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도 9 玉盞, 제 1실(태조) 작헌례용,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도 10 青玉菊花耳葵花瓣杯, 明 中期, 高 6.2cm, 清, 대만국립고궁박물원



도 11 玉盞과 雙龍文 盞臺, 제 3실(영조) 진전다례 용,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도 12 玉盞과 雙龍文 盞臺, 제 7실(헌종) 진전다례 용,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러있고 은사슬로 손잡이와 연결시켜 분실을 방지하였다.

도설 속 은병의 동체에는 원형 화창이 있고, 화창 안에는 봉황문, 팔보문, 매화문, 만자문 등이 입사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이와 유사한 은병이 고궁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는데, 같은 기형과 문양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은병이 가례용 연향 뿐만이 아니라



도 13 金蓋托白玉盃, 高 7.0cm, 明, 北京市昌平縣十三陵定陵出土, 북경정릉박물관



도 14 銀注子, 高 29.0cm,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진전용 다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다(도 14).

도면 속 은병들의 높이는 현전하는 은병의 총 높이(29.0cm) 보다 약간 작는데, 이 치수들은 뚜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높이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제작시 뚜껑의 높이까지 감안하면 현전하는 실물의 크기와 유사해진다.⁴²

셋째, 선원전 예기는 속제에 해당하는 길례용 제기이면서도 탄신다례 등을 올리는 가례용 예기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잔과 병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제기는 簠·簋·樽·爵과 같은 길례용 제기들을 주로 ‘제기’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경운궁 선원전 예기에서는 기존의 제기 기형과 차이가 있으며, 병과 잔 등의 일부 기형은 일상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릇 혹은 각종 진연진찬 의궤 도설에 그려진 가례용 의례기와 유사하다(도 8의 玉杯와 銀鍍金杯).

선원전에서의 제사가 길례에 속하면서도 전형적인 길례용 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대 왕들을 마치 부모가 살아계시듯 모시는 선원전 제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⁴² 이 의궤에는 기준이 되는 척의 종류가 제시되지 않아 조례기척 중 창덕궁 소장 유척을 기준으로 하면 22-25cm에 분포하며, 『세종실록』 태백산본 조례기척도 기준으로 하면 23-26cm 범위 내 분포한다. 이에 조선시대 宗廟와 文廟 등의 각종 禮器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던 자인 造禮器尺을 기준으로 삼되, <표 3>의 치수는 현전하는 예기척 중 창덕궁 소장의 鎡尺(1尺=27.474cm)을 택하여 미터법으로 환산하였다. 이 치수가 실제 유물의 크기에 가깝지만 정확한 치수였다고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전하는 실물과 도설의 예기척의 길이가 27-29cm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파악된다. 선원전 제사에 일상적인 배알 뿐만 아니라 유독 탄신다례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기물도 마치 살아생전의 다과상이나 잔치상에 올리는 것과 같은 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⁴³

IV. 도설 속 예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속 도설들 속 예기들은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선원전의 기물과 의장을 천자의 의식절차대로 고치라는 하명에서 제작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비록 대한제국이 선포된 시점과 나란히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 여건과 정황상 1900년 경운궁 선원전 화마 이후에 새롭게 제작되어 구비되었던 예기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국에 걸맞은 예기와 각종 의장물들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황제권과 국권을 강화하려는 정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운궁 선원전 예기의 어떤 면에서 정치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을까? 의궤 속 도설을 통해 옥잔과 쌍룡문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1. 대한제국기 선원전 예기로 선택된 옥잔

옥잔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제후국인 조선에서 옥잔을 사용할 수 있는 의례는 한정되었다.⁴⁴ 조선의 제의에서 옥 재질의 잔 혹은 작이 금기시 된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세종대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종묘와 산

⁴³ 예기의 성격과 기종 구분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조선시대 가례용 기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장경희와 정희정 등의 연구가 있다.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8);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5).

⁴⁴ 옥은 황제와 동일시되었다. 조선시대 정조는 연경사로 다녀온 李百亨에게 연향에 관련한 사안들을 묻는 중에 황제를 인견한 것은 모두 몇 차례였으며, 황제가 옥잔에 法醕을 따라 조선의 연향사신(上使·副使)에게 하사했는지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황제가 옥잔에 술을 내어 주는 일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省錄』 1790(정조14) 10월 26일. 조선시대 옥기에 대한 연구는 선학들에 의해 일부 개진된 상태이며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경희, 「조선후기 왕실의 옥공예장인 연구-17·18세기 옥장과 각수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2001, pp. 109-149; 신대현, 「朝鮮時代 玉器 研究-『朝鮮王朝實錄』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18, 2002, pp. 199-232.

릉에서 사용하는 瓚·爵이 尙古에 적합한지 점검하였다. 조사를 통해 중국 황제는 虞舜 이래로 옥 재질의 瓚爵을 사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한다.⁴⁵

“...虞舜은 종묘 제향을 玉罍(옥잔)으로 하고, 夏后氏는 식(珺)을 썼다 하니, 식은 곧 爵이며,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周禮』에 太宰가 선왕을 제향할 때에 玉爵이라 불렀고, 천자는 종묘 제향에 圭瓚을 썼다고 했으며, 송나라 시대에 와서는 황제가 친히 태묘에 제향하는데 玉罍로 잔질하고 亞獻과 종헌은 은가로 썼으며, 飲福에는 금가를 썼고, 태묘 제향에는 금과 은을 칠한 찬을 쓰고 유사가 행사할 때에는 구리로 만든 찬을 썼으니, 무릇 역대의 찬과 작이 모두 옥과 은을 썼습니다...”

이에 세종은 ‘古制에 따라 친향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은을 쓰고, 대행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구리를 쓰며, 친향할 때의 아헌과 종헌도 역시 은작을 쓰기를 恒式으로 하라’고 하여 황제가 사용하는 옥을 거둬 삼가고 제후국으로서 금은기와 유기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기사 이후 제작된 『世宗實錄』 「五禮儀」의 제기도설에 위의 결정을 반영하였고, 이후의 제기도설에 의당 옥작이나 옥잔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조선시대 제사 중 속제는 작이 아닌 잔이 사용되었는데, 조선시대 의례서에서 속제용 잔은 도금한 은잔(銀鍍金滿鏤臺盞)으로 동일한 기형과 문양의 도설 『국조오례의』에서부터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실려 있다(도 3). 이처럼 제후국으로서 제의에 옥을 삼가던 전통을 따라 선원전에서도 옥재질의 잔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영정모사도감의궤』(1901)를 통해 대한제국기에는 옥잔을 선원전 의례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俗祭에 해당하는 선원전 의례에 종전의 도금은잔을 사용하지 않고 옥잔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제사용 예기로서 사용하지 않았던 옥 재질을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사용하려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⁴⁵ 『世宗實錄』, 세종19(1437) 8월 15일 기사. 명대부터 황실용 옥잔들이 제작되어 다수 전해지고 있으며, 明十三陵의 유물 중 보석이 상감된 옥작과 옥잔이 현전한다.

⁴⁶ 국가의 공식제향에서 옥으로 된 酒具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보단에서 중국의 삼황제(高皇帝·神宗皇帝·毅宗皇帝)에게 제향을 올릴 경우에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영조대 大報壇에서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제향의 高皇帝樂章文에서 ‘瑟瓚黃流 神保是皇(찬란한 옥잔에 올창주 가득하니 신명의 보호 하에 바로잡아 주소서)’란 구절이 등장한다. 중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잔은 옥잔에 올창주를 담아 바쳤던 것을 통해 제향에서 옥잔은 황제의 잔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후기 대보단에 삼황제에게 玉瓚 올린다는 기록이 다수 확인되어 옥잔을 황제의 잔으로 인식하고 제한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기 이전에 대보단 제향 외에 조선시대 국가 의례에서 玉瓚이 등장하는 경우는 제향이 아닌 주로 嘉禮이다.

서두에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원전의 옥기 사용은 황제국에 부합하는 예기를 구비함과 동시에 선원전 의례 특성상 가례적 속성으로 인하여 대한제국기 선원전에서도 옥잔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체제 정비는 결국 황권강화와 국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2. 예기로까지 확산된 쌍룡도상

의궤 속 도설 중 3점의 옥잔대에 쌍룡이 조각되어 있다(도 5, 도 11, 도 12, 표 3).⁴⁸ 원래 쌍룡 도상은 조선시대-대한제국기에도 寶蓋, 寶盞, 蛟龍旗처럼 왕과 관계된 기물과 건축물 등에 의장으로 사용된 도상이다.

의궤 속 경운궁 선원전의 천장에도 황금색 쌍룡의 부룡이 그려져 있다(도 16). 두 마리가 여의주를 둘러싸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형상의 二龍戲珠文이다. 고종황제는 선원전 천장 뿐만 아니라 덕수궁 중화전 천장 중앙의 부당가, 창덕궁 신선원전 황궁우의 천장, 황제의 행차에 대동하는 황룡기 등을 황색의 이룡희주문으로 장식하여 황실의 위엄을 시각화하기 위해 황금빛의 쌍룡 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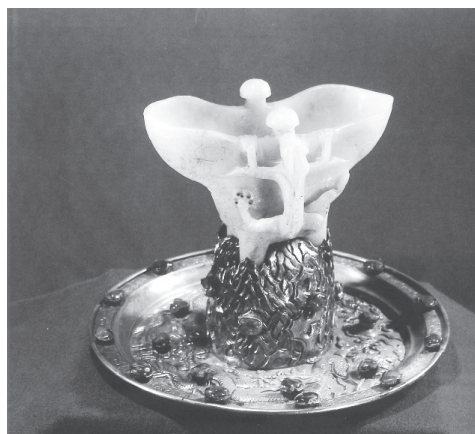
이에 비해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릇에 쌍룡을 장식한 경우는 재질을 불문하고 현재로서 매우 극소하다. 물론 조선-대한제국기에도 주로 白磁壺에 一龍이

그려진 예는 많지만 잔대에 쌍룡을 장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진연진찬의궤 도설에 그려진 금속제 잔대에서는 쌍룡문이 등장하지 않고 박쥐문·문자문·화문 등이 장식되어 있어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의 쌍룡문 잔대는 조선후기 최고급 가례와도 차별화되며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 건축과 의물들에 사용된 쌍룡 도상이 왜 그릇에는 허락되지



도 16 浮龍,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⁴⁸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룡문의 도상 유형과 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룡도상의 유형과 함의 : 一升一降龍 도상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4(2013), pp. 89-115.



도 17-1 玉爵과 雙龍文金盞托, 高 11.5cm, 明, 北京市昌平縣十三陵定陵出土, 북경정릉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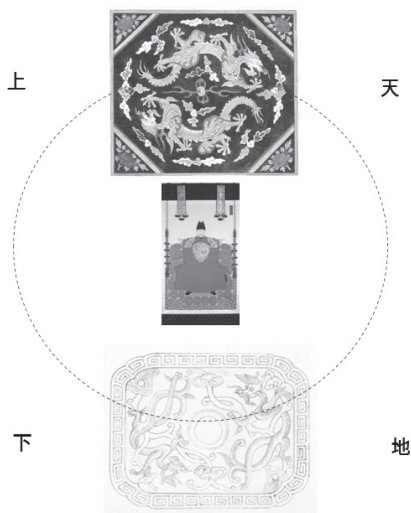
도 17-2 쌍룡문금잔탁의 쌍룡문양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기존에 없던 의례기명의 쌍룡도상이 영정모사도감 의궤(1901)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의궤 도설 속 선원전용 옥잔대에 쌍룡문이 장식된 배경과 특징이 주목된다(도 11, 도 12).

도설 속 경운궁 선원전 옥잔대는 一乘一降龍文 옥잔대가 2점과 乘龍文 옥잔대가 1점이 그려져 있다. 우선, 일승일강용문의 옥잔대의 경우 비록 여의주는 없지만 가운데 잔을 놓는 부분이 마치 여의주를 연상하게끔 하여, 두 마리의 용이 원형을 그리며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이룡희주문과도 연관된다(도 12). 실제로 잔이 잔대의 가운데 놓였을 때 비로소 쌍룡이 잔을 둘러싸는 형상의 옥잔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일승일강용문은 어진봉안실의 천장 부룡장식으로 그려져 있어, 경운궁 선원전의 천장과 제상이 모두 쌍룡문으로 장식되는 공간이 연출되었다(도 18).

다음으로 승룡문 옥잔대의 쌍룡은 여의주(잔을 놓는 부분)의 양 옆에 대칭적으로 배치되었는데, 5개의 발톱을 갖추고 있다(도 11). 원래 승룡은 고대부터 하늘을 상징하는 천자의 도상으로 조선에서도 왕



도 18 경운궁 선원전에 배치된 쌍룡문

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승룡은 조선초기부터 존송되어 주로 옥새를 담은 寶璽의 장식에 사용되다가, 대한제국기 이후 十二章服과 궁궐의 건축 장식에도 시문되었다.⁴⁹ 도설 속 옥잔의 쌍룡문은 전형적인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승룡의 도상적 특징을 잘 반영한 문양이라고 할 있다.

기존에 왕실용 그릇의 문양으로는 등장하지 않던 쌍룡이 비로소 그릇에 등장한 것은 황제국 의기로서의 상징성을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쌍룡문이 황실예기라는 점은 明代 황제능인 定陵에서 출토된 玉爵을 받치는 金盞托의 쌍룡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다(도 17).

결론적으로 쌍룡으로 장식된 옥잔대를 통해 황제국의 시각상징물이 건축물이나 의장물을 넘어서 황실 내부에서 소용되는 의례기명까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황실 소용의 많은 기물들 중에서도 경운궁 선원전 기물에 적용된 것은 선원전이 황실의 적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한 전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으로 경운궁 선원전 예기들을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예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의례의 핵심인 음식이 담기는 기물임과 동시에 기형과 문양에서 권력자의 의도와 목적을 읽을 수 있는 정치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운궁 선원전 예기는 1900년 10월 13일(윤8월 20일)에 선원전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일괄로 구비되었는데, 이례적으로 의궤 속 도설로 그려졌다. 선원전 예기 구비와 도설 제작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경운궁 선원전 예기는 조선후기부터 선원전이 효의 전각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효행을 위한 의례와 의례기를 갖춰놓기 위하여 각별히 구비되었다. 둘째 기존 예기의 구비와 관리측면에서 고종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자국의 의식에 부합하는 선원전 전용 예기를 갖출 것을 공표하여 1901년에 비로소 갖추게 된 후 12칸으로 확장된 제기고에서 관리되었다. 셋째, 예기를 구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화면으로 담아내어 향후에도 황제국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전례서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⁴⁹ 김주연, 앞의 논문(2013), p. 108.

경운궁 선원전 예기의 구성은 매우 다양다종하지만, 선원전 예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종은 옥잔과 은병이다. 다른 대부분의 기종들이 문양이 없거나 간단한 문양으로 장식된 데에 반해서 옥잔과 은병은 대부분 각 실별로 다른 기형과 문양이 진설되었다. 잔은 酌獻禮用과 眞殿茶禮用으로 구별되는데, 옥잔이 용도에 따라 나뉘는 것은 옥잔이 해당 의례를 대표하는 기물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잔과 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선원전 예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嘉禮用 의례기와 유사한데 이는 선원전 제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선원전의 탄신다례시 국왕(황제)는 어진을 부모가 살아계시듯 모셨으므로, 기물도 마치 살아 생전의 잔치상에 올리는 것과 같은 가례용 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설 속 예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옥잔과 쌍룡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원래 옥잔은 황제가 제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서, 대한제국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제향에서는 옥잔을 삼갔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의례에서는 천자국의 격식에 맞추고 선원전의 가례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옥잔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체제 정비는 결국 황권강화와 국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더불어 쌍룡은 의장물의 장식으로는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그릇에 장식된 경우는 매우 희귀한 편인데, 의궤 속 3점의 옥잔대에 장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쌍룡으로 장식된 옥잔대를 통해 황제국의 시각상징물이 건축물이나 의장물을 넘어서 황실 내부에서 소용되는 의례용 그릇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운궁 선원전 예기가 제작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례적으로 그려진 도설, 옥잔과 쌍룡 등의 재질과 조형요소를 통해 경운궁 선원전 예기의 특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대한제국기 시각문화를 관통하는 일종의 공통된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를 경운궁 선원전 예기라는 공간과 물질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진전용 예기에 관한 본격적인 초기 연구로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보다는 앞으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

*주제어(Key Words) 대한제국(Great Han Empire), 경운궁(Gyeongun'gung palace), 선원전(Seonwonjeon hall), 영정모사도감의궤(Yeongjeong mosa-dogam uigwe), 어진(king's portrait), 진전(portrait hall), 예기(ritual wares), 옥잔(jade cup), 은병(silver bottle), 쌍룡(twin dragons)

■ 투고일 2015년 6월 18일 | 심사개시일 2015년 6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1. 사료

- 『國朝寶鑑』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大韓禮典』
『睿源殿眞殿重建都監儀軌』(1902)
『影幀摹寫都監儀軌』(1688)
『御容圖寫都監儀軌』(1713)
『影幀摹寫都監儀軌』(1735)
『影幀摹寫都監儀軌』(1748)
『影幀摹寫都監儀軌』(1838)
『影幀摹寫都監儀軌』(1900)
『影幀摹寫都監儀軌』(1901)
『御眞圖寫都監儀軌』(1902)
『日省錄』
『祭祀 附睿源殿茶禮』(1928, 이왕직)
『朝鮮王朝實錄』
『進宴儀軌』(1902)
『眞殿茶禮概要』(1937, 이왕직)
『春官通考』
『弘齋全書』
『笏記陳設圖』(1937, 이왕직)

2. 도록 및 단행본

- 『국역 影幀摹寫都監儀軌』, 민속원, 2014.
최소연, 『역주 진전다례개요』, 민속원, 2015.
杜金鵬 共編, 『中國古代酒具』, 上海文化, 1997.
馬自樹, 『中國文物定級圖典』 下券, 上海辭書, 2006.
中國玉器全集編輯委員會, 『中國玉器全集』 5·6, 石家莊: 河北美術出版社, 1993.
欣弘 編, 『中國歷代玉器』 上 下, 湖南美術出版社, 2006.

3. 논문

- 강성금, 「朝鮮時代 眞殿 誕辰茶禮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구혜인, 「조선 후기 회화와 공예에 나타난 수박문」, 『정신문화연구』 136, 2014, pp. 62-92.
-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용도상의 유형과 함의 : 一升一降龍 도상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4, 2013, pp. 89-115.
-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 김세은, 「조선시대 眞殿 의례의 변화」, 『진단학보』 118, 2013, pp. 1-29.
- 박계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명성황후발인반차도〉 연구」, 『美術史論壇』 35, 2012, pp. 91-115.
- 박은순, 「조선후기 의례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6, 2005, pp. 249-308.
- 신대현, 「朝鮮時代 玉器 研究-『朝鮮王朝實錄』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18, 2002, pp. 199-232.
- 신명호, 「조선시대 진연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pp. 200-209.
- 유재빈, 「조선후기 어진 관계 의례 연구 : 의례를 통해 본 어진의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pp. 74-98.
-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2013, pp. 413-454.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 2004, pp. 59-94.
- _____,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pp. 292-373.
-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2007, pp. 153-195.
-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_____, 「조선후기 왕실의 옥공예장인연구-17·18세기 옥장과 각수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2001, pp. 109-149.
- 정영선, 「茶禮祭祀의 淵源과 展開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고종대의 태조 어진과 진전」, 『미술사연구』 20, 2006, pp. 29-56.

국문초록

『影幀摹寫都監儀軌』(1901, 고종38)는 경운궁 선원전에 모실 7대(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 선왕의 御眞을 모사한 행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의궤의 圖說에는 유일하게 진전용 예기 도설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 『영정모사도감의궤』는 대한제국기 진전 의례의 구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헌이다.

경운궁 선원전 예기는 1900년 10월 13일(음력 윤8월 20일)에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일괄로 다시 제작되었는데 이례적으로 의궤 속에 도설로 그려졌다. 선원전 예기 구비와 도설 제작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경운궁 선원전 예기는 조선후기부터 선원전이孝의 전각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효행을 위한 의례를 위하여 각별히 구비되었다. 둘째, 고종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자국의 의식에 부합하는 선원전 전용 예기가 새롭게 갖추어 1901년에 다시 마련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예기고에서 관리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예기를 구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상의 이미지를 수록하여 향후에도 황제국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전례서로 활용 가능케 하였다는 점이다.

경운궁 선원전 예기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선원전 예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종은 옥잔과 은병이다. 다른 대부분의 기종들이 문양이 없거나 간단한 문양으로 장식된 데에 반해서 옥잔과 은병은 대부분 각 실별로 다른 기형과 문양이 진설되었다. 잔은 酌獻禮用과 眞殿茶禮用으로 구별되는데, 옥잔이 용도에 따라 나뉘는 것은 옥잔이 해당 의례를 대표하는 기물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잔과 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선원전 예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嘉禮用 의례기와 유사한데 이는 선원전 제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선원전의 탄신다례시 국왕(황제)의 어진을 부모가 살아계시듯 모셨으므로, 기물도 마치 살아 생전의 잔치상에 올리는 것과 같은 가례용 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설 속 예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옥잔과 쌍룡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원래 옥잔은 황제가 제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서, 대한제국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제향에서는 옥잔을 삼갔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의례에서는 천자국의 격식에 맞추고 선원전의 가례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옥잔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체제 정비는 결국 황권강화와 국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더불어 쌍룡은 의장물의 장식으로는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그릇에 장식된 경우는 매우 드문 문양인데, 의궤 속 3점의 옥잔대에 장식되었다. 쌍룡으로 장식된 옥잔대를 통해 황제국의 시각상징물이 건축물이나 의장물을 넘어서 황실 내부에서 소용되는 의례기명까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mposition of Ritual Vessels in Seonwonjeon,
Gyeongungung,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and its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Vessels Described in the Illustration of *Yeongjeong mosa-dogam uigwe*

Koo Hyein *

Produced in 1901 (38th year of King Gojong), the *Yeongjeong mosa-dogam uigwe* (影幀摹寫都監儀軌) records the events surrounding the replication of the portraits of seven kings enshrined in Seonwonjeon (the royal portrait hall) located in the precincts of the royal palace Gyeongungung. This courtly treatise is unique in providing explanatory diagrams for ritual vessels used for state rites, and is thus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and significance of state rites performed at Seonwonjeon during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 ritual vessels housed in Seonwonjeon, Gyeongungung, were all replicated after their destruction by fire on October 13, 1900 (20th day of the 8th leap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nd unusually portrayed in explanatory diagrams included in *Uigwe*. This paper studies three aspects to examine the background behind the composition of ritual vessels used at Seonwonjeon and the production of explanatory diagrams. First, the said ritual vessels were carefully prepared to be used for rites associated with filial piety, as Seonwonjeon became significant as the 'royal palace of filial piety'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Second, they had been originally produced exclusively for Seonwonjeon as befitting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untry following King Gojong's declar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and after the ritual vessels were newly prepared in 1901, they were managed at an expanded storage

* Instructor,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facility. Third, the vessels were not only prepared for rites, but also documented along with high-quality images in order to be utilized as a ritual-related source commensurate with the heightened status of an imperial power.

Ritual vessels at Seonwonjeon comprise a variety of items, and some of the most distinguished are the jade cups and silver bottles. Whereas most utensils have simple patterns or none, most of the jade cups and silver bottles in each chamber demonstrate different shapes and patterns. The cups are classified as those used for *Jakheonrye* (king's ancestral ritual) and those used for tea ceremony at the halls of royal portraits, as ritual utensils representing the relevant rites. The analysis of the cups and bottles suggests that one of the most conspicuous features of ritual wares at Seonwonjeon is shared by ritual wares for auspicious ceremonies, which originates from the distinctiveness of ancestral rites performed at Seonwonjeon. As the portrait of a previous king (emperor) was to be handled with significant care when performing a royal birthday tea ceremony at Seonwonjeon and accorded the same respect as living parents, ancestral rites used the same items for auspicious ceremonies as if being used for a banquet for living paren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ritual wares depicted in the explanatory diagrams can be interpreted through the jade cups and the decoration of twin dragons. Since jade cups could be used by an emperor during an official rite, they were prohibited from being used at official state rites until the found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The jade cups were then used at rites performed at Seonwonjeon during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as a means to align with both the country's status as an imperial nation and the auspicious nature of Seonwonjeon. This transition was part of the policy to strengthen imperial power and to stabilize national sovereignty. The motif of twin dragons has long been used to decorate ritual objects, but it was rarely used for utensils. In this regard, the three pieces of jade cups embossed with the figure of twin dragons depicted in *Uigwe* suggest that visual symbols of an imperial nation were used not only for buildings and ritual objects, but also for ritual items used under the Great Han Empire.